

두피탈모관리센터 우수사례 1

TE-3. 35세

탈모진행기간 : 13년

관리기간 : 9개월관리

관리 프로그램 : ITS 주 1회

홈케어 : 토닉(ST), 샴푸,
앤플러스

상세설명

보시는 것처럼 매우매우매우 좋은 결과를 보셨구요. 완벽해 지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관리 받고 계십니다. 여러 두피관리 센터나 병원, 한의원에서 관리 받아보셨지만 아미치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두피탈모관리센터 우수사례 2

ASIA
Asia

FPA -3, 60세

탈모진행기간 : 18년

관리기간 : 7개월관리

관리 프로그램 : S.C.P 주 2회
관리

홈케어 : 토닉(ST), 샴푸,
앤-플러스, 스트레스 싹

상세설명

처음 오셨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가발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피부과치료 6개월, 미녹시딜 1년 사용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어서 아미치를 방문하게 되셨구요. 7개월만에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지금은 가발 벗고 당당하게~~^^ 역시 아미치의 효과는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고객님들도 득모하세요~



관리전



관리후

두피탈모관리센터 우수사례 3

체질적트러블. 35세

트러블 진행기간 : 4-5년

관리기간 : 1개월관리

관리 프로그램 : ITS 주 1회

홈케어 : 데이케어토닉, 나이트
케어에센스, 샴푸, 스트레스 싹

상세설명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고객님이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주일에 3회 정도 술을 드셨구요. 불면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피에 트러블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구요 …트러블 때문에 피부과에서 연고와 복용약을 처방 받아 사용했지만 그때 만 좋아질 뿐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아미치에 방문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트러블이 많이 개선된 상태시구요, 건강해진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 아미치 샴푸를 꾸준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피탈모관리센터 우수사례 4

생리적드러블 + FPB-1 43세

트러블진행기간 : 3개월

관리기간 : 1회 관리 후 개선텐

관리 프로그램 : ITS 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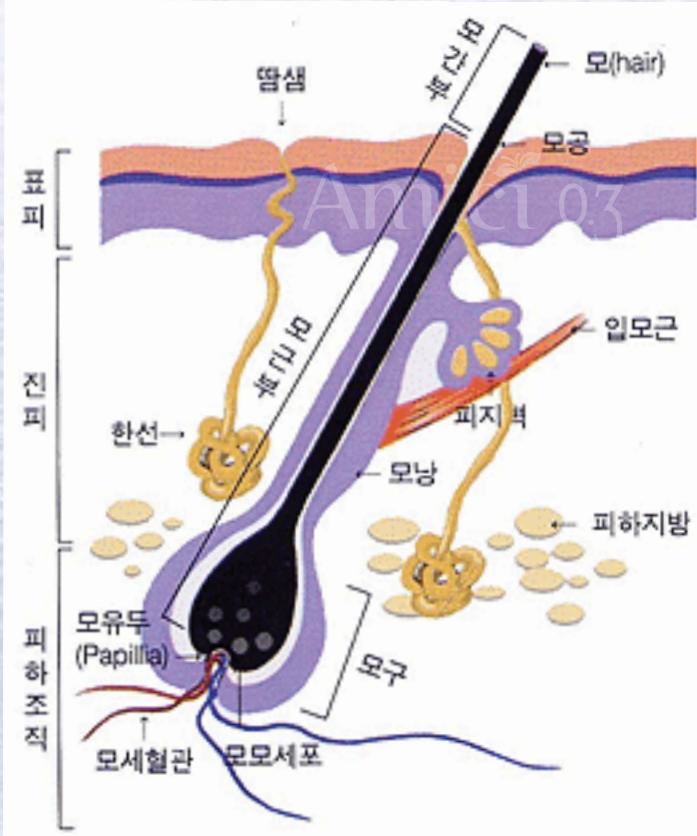
홈케어 : 데이케어토닉, 나이트
케어에센스, 샴푸

상세설명

모발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성분 중에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사이토
카인 성분에 알러지가 있어서 모공
마다 염증반응이 심하게 올라왔습
니다. 두피 전체가 염증으로 뒤덮혔
습니다. 이때 아미치의 비장의 무기!!
ITS 트러블 관리 1회를 받으신 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 두피 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역시 ITS~!!!



두피정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낭의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하게 됩니다.

하나의 모낭은 하나의 모발을 키워냅니다.

모발을 키워내는 모낭은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피부 깊숙히 존재합니다.
(모낭-위의 그램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긴 주머니 모양인 것)

건강한 두피만들기-1탄에서 보신 것과 같이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낭은 피부층 중에서 진피 층과 피하지방층이 맞닿아있는 곳에 존재 합니다.

그러므로 모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모낭이 건강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두피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탈모로 아미치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두피관리 프로그램에는 손상된 모낭을 건강하게, 면역력이 저하된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관리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탄 건강한 모발의
핵심!

모낭

모낭...두피관리를 받다보면 한번쯤 들게 되는 단어로, 그 사전적 의미는 <내피 안에서 모근(毛根)을 써고 털의 영양을 맡아보는 주머니>로 피부 속에서 모근의 발육을 돋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낭의



숲! 그리고 피톤치드

이 계절에 가장 권하고 싶은 것.

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벌써 낮에는 돌아다니기 힘들정도로 핫볕이 따가워진 6월입니다.

이럴 때 역시 가장 좋은 곳은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숲입니다.

숲을 통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피톤치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합성어로 파이톤(phytion)은 “식물”을 의미하는 말이고 사이드(cide)는 “살균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식물이 내는 살균력, 자연 치유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숲은 피톤치드를 내뿜어서 갖가지 유해물질과 스트레스로부터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하게 해줍니다. 최근 국립공원에서는 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프로그램도 여러가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말엔 가까운 등산로로 발길을 옮겨 살림욕을 통해 피톤치드에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톤치드 최고치로 올리는 살림욕법

1. 피부의 노출이 많은 헐렁한 옷차림은 피톤치드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피톤치드는 기온이 높을수록 발산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겨울보다 여름에 그리고 2-4시가 가장 높습니다.
3. 산정상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나무가 빼곡한 산중턱에서 살림욕을 즐기는 것이 좋다.
4. 살림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숲속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보다 빠른걸음으로 걷는 것이 폐의 산소를 더 많이 환기시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